

# 거리두기 피로감...“주말에는 나가야겠다”

## 광주·전남 주요 상권 4곳 1월 분석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광주·전남 4대 상권 구매자 수가 석 달 새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활 속 방역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광주지역 상권 3곳의 주말 고객은 오히려 늘었다.

이 같은 내용은 23일 광주일보가 KB부동산 상가정보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광주·전남 주요 상권 4곳 '상권분석 보고서'에 담겼다.

지난 1월 기준 4대 상권 유료 고객은 총 110만 1960명으로,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144만513명)보다 23.5%(-33만855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권은 ㈜광주신세계, 이마트 광주점, 금호월드,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를 포함한 '광천동' (서구) 상권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반도전자도매상가, 금남전자상가, 광주은행 본점을 아우르는 '금남로4가역' (동구), 이마트 봉

유료 고객 110만1900명...3개월 전보다 23.5% 감소

주말엔 광주 봉선지구 24.1%·광천동 11% 등 늘어나 나주 혁신도시, 평일·주말 구매 모두 30%대 줄어들어

선점과 인근 식당 거리를 에워싼 '봉선지구' (남구) 등이다. 나주 혁신도시 상권은 빗가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한 반경 700m 구역을 분석했다.

상권별로 보면 혁신도시 구매자는 지난해 9월 79만8816명에서 올 1월 50만4760명으로, 무려 36.8%(-29만4056명) 감소하며 타격이 가장 컸다. 광천동 권역은 35만6028명에서 32만4721명으로, 석 달 새 8.8%(-3만1307명) 감소했다. 금남로 4가역은 석 달 전보다 10.6%(-1만9636명) 감소한 16만6123명에 그쳤다. 반면 봉선지구 상권은 9만9910명에서 10만6356명으로 구매자가 6.5%(6446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반적으로 매출 타격을 입었지만, 광주 상권 3곳의 주말 고객을 떼어놓고 보면 구매자가 증가했다. 대규모 주거단지인 봉선지구의 경우 주말 유료 고객은 지난해 9월 2만8072명에서 올 1월 3만 4824명으로 24.1%(6752명) 증가했다. 광천동 상권 주말 고객은 11만5151명에서 12만7762명으로, 11.0%(1만2611명) 증가했고, 금남로 4가역은 석 달 전보다 7.4%(2585명) 늘어난 3만 7403명을 기록했다.

이는 광주 3대 상권 모두 평일(월-금) 고객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과 대조된다.

광천동 평일 고객은 24만877명에서 19만 6959명으로, 18.2%(-4만3918명)나 줄었다. 금남로 4가 상권은 14.7%(-2만2221명) 감소한 12만8720명으로 나타났으며, 봉선지구 유료 고

객은 0.4%(-306명) 감소한 7만1532명으로 집계됐다.

대체적으로 근무를 하는 평일에는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는 '집콕' 추세를 따랐지만, 주말에는 억눌린 소비심리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객 감소세가 가장 심각했던 나주 혁신도시 상권은 주말과 평일 모두 구매자가 크게 줄었다.

혁신도시 평일 고객은 지난해 9월 59만2449명에서 올해 1월 36만4684명으로, 38.4%(-22만 7765명) 급감했다. 주말 고객은 20만6367명에서 14만76명으로, 32.1%(-6만6291명) 줄어들며 평일과 비슷한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KB 상가정보 시스템은 매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상권 위주로 추정매출, 소비고객 통계, 유동인구 정보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권역의 소비고객 통계는 가맹점 소재지 기준 KB카드 매출과 시장분석업체 나이스지니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04.74 (-30.72)
↓ 코스닥	946.31 (-9.07)
↑ 금리 (국고채 3년)	1.132 (+0.002)
↑ 환율 (USD)	1129.70 (+1.30)

## 광주상생카드 출시 2주년 광주은행, 6월 21일까지 행사

광주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사진) 출시 2주년을 맞아 광주은행이 6월 21일까지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광주상생카드 (체크·선불) 총이용액이 50만원이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 광주상생선불카드를 준다. 2등 4명은 광주상생선불카드 50만원씩, 3등 700명에게는 GS 25편의점 1만원권을 제공한다.

상생카드는 광주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광주시가 지난 2019년 3월 출시한 뒤 광주은행이 2년 동안 운영대행사를 맡아 발급·운영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까지였던 광주상생카드 10% 특별 할인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출시 2년 만에 발행액 1조원을 돌파한 상생카드는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50만원씩, 월 100만원 이내 사용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재중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광주상생카드가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로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예비 귀농인 적금 출시

### 농협 광주본부, 1호 가입 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의 예비 귀농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NH농촌으로 적금' 1호 가입행사를 최근 송정농협에서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금융상품은 농협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내놓은 적립식 상품이다. 연 최고 2.0%포인트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농업자금 특별중도해지'가 부가서비스로 제공된다. 가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예금의 경우, 가입자 본인의 농업자금 활용을 사유로 중도해지 때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당시 약정금리를 적용해 해지할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은 오는 5월 15일까지 가입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농촌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기아 준대형 세단 'K8' 사전계약

### 출고가 3279만원~3659만원

기아는 다음달 초 출시하는 준대형 세단 'K8' (사진)의 주요 사양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K8은 2.5와 3.5 가솔린, 3.5 LPI 등 총 3가지 모델로 사전계약을 시작한 뒤 상반기 중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3.5 가솔린 모델에는 국산 준대형 세단 최초로 전문 기반 사륜 구동(AWD)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3.5 가솔린 모델과 3.5 LPI 모델은 국내 최초로 투 챔버 토크 컨버터가 적용된 신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또 운전의 피로감을 낮춰주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드라이브 와이즈'도 적용됐다. 고속도로 주행과 차로 변경을 도와줄 뿐 아니라 주행 중 열 차량과 가까워지는 경우 위험하지 않도록 차로 내에서 편향 주행을 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2),

운전자기 설정한 속도로 주행·정차·재출발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등이다.

운전석에 7개 공기 주머니를 활용해 최적의 좌좌감을 제공하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기아 최초로 적용됐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열 헤드레스트 후면부를 가방이나 옷을 걸어둘 수 있는 옷걸이 형태로 만들었으며, 기아 최초로 영국 대표 오디오 시스템 브랜드인 메리디안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탑재된다.

K8 2.5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198마력, 최대토크 25.3kgf·m, 3.5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300마력, 최대토크 36.6kgf·m의 성능을 갖췄고, 외장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스틸 그레이 등 총 6가지로 운영된다.

가격은 ▲2.5 가솔린 3279만원~3868만원 ▲3.5 가솔린 3618만원~4526만원 ▲3.5 LPI 3220만원~3659만원이다.

/백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23일 열린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 네번째) 여수웅천지점(웅천로 134) 개점 기념행사에 임직원들이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지역 밀착 경영' ...여수에 신규 점포

시중 은행권이 영업점을 축소하는 가운데 광주은행이 '지역 밀착 경영'의 하나로 여수에 신규 점포를 냈다.

광주은행은 최근 여수시 웅천지구에 여수웅천지점(웅천로 134) 문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인구가 3만명으로 불어난 280만㎡ 규모 웅천지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점포 신설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역은 대규모 공공택지구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웅천-소호간 대교 건설을 통해 해양레저

스포츠 및 교통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웅천로 3거리 신축 건물 1층에 점포를 냈다.

광주은행은 최근 3년 동안 지역 밀착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점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개 점포가 새로 문을 열었고,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영업점 8곳을 이전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신설로 영업점 수는 광주·전남 118개, 수도권 25개 등 143개로 늘어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